

“설날 이름 알리자”...입지자들 벌써부터 ‘총성 없는 전쟁’

광주

제21대 국회의원 선거를 앞두고 ‘호남 정치 1번지’ 광주 정가는 벌써 뜨겁게 달아오르고 있다. 지난 총선에서의 참패를 만회하고 정치적 기반인 호남에서의 부활을 예고하고 있는 더불어민주당은 최근 주춤하고 있는 문재인 대통령과 당의 지지율에도 불구하고 출마 예정자들이 줄을 잇고 있어 그 어느 때보다 당내 경선이 치열할 전망이다. 총선 승리 이후 분당의 아픔을 겪으며 수성해야 하는 바른미래당과 민주평화당도 조직을 재정비하는 등 진용을 갖추고 있다. 또한 수십여 년 동안 호남에서 외면을 받았던 자유한국당도 최근 정당 지지율이 상승하면서 내년 총선에 당선 가능성이 큰 중량급 있는 호남 후보를 낸다는 계획을 짜고 있다.

특히, 최근 광주 정가에서는 ‘세대 교체’에 대한 열망도 커지고 있다. 과거 특정 정당을 중심으로 한 ‘계보 정치’ 탓에 지역 정치 인재를 키우지 못했다는 반성의 목소리가 커지고 있고 독보적인 지지율을 보이고 있는 현역 의원들이 흔치 않아 정치 신인들의 도전이 거세다.

지역 정가에 따르면 현재 광주에서는 현역 의원을 비롯해 자천타천 30여명의 출마 예정자들이 물밑 경쟁을 펼치고 있다.

광주지역구 국회의원들은 현재 민주당 1석, 평화당 4석, 바른미래당 3석으로 여당인 민주당 입후보자들의 도전이 줄을 잇고 있으며 야당에서는 현역 의원들의 수성 여부가 최대 관전 포인트로 손꼽히고 있다.

출마 예정자가 몰리고 있는 민주당의 경우 일부 출마자의 당적 유지 여부 확인 작업에 들어가는 등 본격적인 총선 준비에 나섰다. 지역구별로 살펴보면, 광주 동남갑의 경우 현재 평화당 장병완 국회의원에 맞서 민주당에서는 최영호 지역위원장, 이정희 변호사, 임형진 전 광주신용보증재단 이사장 등이 자천타천 거론되고 있다.

바른미래당 박주선 의원의 재도전이 점쳐지는 동안음에도 5명 가량의 출마가 예상된다. 민주당에서는 이병훈 광주시 문화경제부시장, 최병근 전 광주 지방변호사회 회장, 강용주 진실의힘 이사 등이 물망에 오르고, 김성환 전 동구구청장은 바른미래당 당내 경선에 나설 것으로 보인다.

광주에서 유일하게 민주당 국회의원을 보유하고 있는 서구갑은 송갑석 현 국회의원의 재선 도전과 함께 당내 경선에서는 박해자 전 국회의원과 재결투가 예상된다. 민주당에서는 김명진 지역위원장 표방을 누비고 있다.

평화당 전정배 의원의 지역구인 서구을에서는 민주당 지역위원장인 양향자 국가공무원인재개발원장, 이남재 시사평론가 등의 민주당 후보가 물망에 오르면서 천 의원과의 한 판 승부를 예고하고 있다.

최근 지역위원장을 맡고 있던 강기정 전 의원이 청와대 정무수석으로 자리를 옮긴 광주 북구갑에는 양부남 의정부지검장과 조오섭 국가균형발전위 소동기획관 등의 민주당 후보가 당내 경선에 나설 것으로 전망된다. 이들은 경선을 거쳐 평화당 김경진 국회의원과의 본선 대결을 펼칠 것으로 보인다.

내년 4월15일 치러지는 제21대 국회의원 선거(총선)는 1년 이상 남았지만, 입지자들은 벌써 ‘총성 없는 전쟁’에 들어갔다. 오랜만에 가족들이 모두 모이는 설날인 만큼 입지자들은 이름 하나라도 알리기 위해 분주한 움직임을 보이고 있다. 특히 선거제도 개혁 여부에 따라 정계개편 등도 예상하면서 조심스러운 행보를 보이고 있다. 지난 2016년 20대 총선에선 광주·전남에 ‘녹색 돌풍’이 불었지만, 지난 2017년 대선을 기점으로 분위기는 더불어민주당으로 넘어갔다. 이는 정당 지지율이나 지난해 지방선거 결과에서도 드러난다. 아직까지 이러한 정치적 분위기는 이어지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따라서 내년 총선에서 민주당이 이런 분위기를 계속해서 이어갈 지, 정계개편 등으로 지역정가가 요동을 칠지 주목된다.



● 광주

현역의원들 수성 여부 최대 관전포인트
현역 등 자천타천 30여명 입지자 물밑 경쟁
민주당 출마 예정자 줄이어 당내 경선 치열 전망
지지율 상승 한국당도 중량급 인사 출마 계획

또 북구을은 평화당 최경환 의원과 민주당 이형석 최고위원 간 승부가 예상된다. 바른미래당 현역 의원들이 버티고 있는 광산지역 선거구도 조금씩 분위기가 고조되고 있다. 광산갑은 바른미래당 김동철 의원에 맞서 민주당 이용빈 지역위원장과 평화당 김정현 대변인 등이 거론되고 있다. 바른미래당 권은희 의원이 텃밭을 다지고 있는 광산을 지역구에는 재선 광산구청장을 지낸 민형배 청와대 사회정책 비서관의 출마가 확실시 된다. 이 밖에도 지역구는 확정하지 않았지만, 광주시 정중제 행정부시장도 광주에서 출마를 저울질 하고 있는 것으로 전해지고 있다.

● 전남

내년 총선 ‘세대 교체’ 최대 쟁점 될 듯
지난 선거 몰락 민주당 부활도 관심사
21대 총선 현역의원 대 민주당 구도 예견
선거제 개혁 여부 따라 정계개편 예상

내년 총선의 쟁점은 세대교체가 될 것으로 보인다. 지난 총선에서 몰락했던 민주당의 부활도 관심사다. 결국 내년 총선 구도는 현직의원 대 민주당 구도로 예견된다. 특히 민주당 후보가 되기 위한 당내 경선은 어느 때 보다 더욱 치열해질 것으로 보인다. 총선 없는 전쟁의 출발점은 나주·화순이다. 민주당 나주·화순 지역위원장을 맡고 있는 신정훈 전 의원이 활발하게 표방을 갈고 있는 가운데 무소속 손금주 의원이 먼저 방아쇠를 당겼다. 손 의원은 민주당 입당 카드를 꺼내들었지만, 결

국 ‘불발’에 그쳤다. 목표는 ‘손혜원 효과’가 관심이다. 손혜원 의원의 투기 논란이 내년 총선으로까지 이어질 것으로 보이기 때문이다. 5선 도전에 나서는 평화당 박지원의원에 맞서 민주당의 행보가 주목된다. 박 의원은 ‘손혜원 논란’으로 한때 곤욕을 치렀지만, 꾸준히 ‘금귀월래(金歸月來)’를 통해 지역구를 관리해온 만큼 지지세가 탄탄한 것으로 알려졌다.

민주당에서는 지역위원장인 우기종 전 전남도 정부부지사와 배종호 전 KBS 기자의 행보가 빨라지고 있고, 진보세력에서는 정의당 윤소하 의원이 나설 것으로 보인다.

‘녹색 돌풍’으로 여의도에 입성한 평화당 소속 초선의 이용주 의원(여수갑)과 정인화 의원(광양·곡성·구례), 윤영일 의원(해남·완도·진도)는 당세가 약해져 힘겨운 싸움을 할 것으로 보인다.

반면, 이들에 맞서는 민주당 입지자들은 넘쳐난다. 여수갑은 총선 후보 전초전인 지역위원장 공모에서 6명이 각축전을 벌이는 등 벌써부터 치열한 경쟁을 하고 있다.

민주당 광양·곡성·구례지역위원장 직무대행에는 이용재 전남도의회의장이 임명됐다. 이 의장은 8대 1의 높은 경쟁률을 뚫고 낙점됐으며, 3선 의원 출신인 우윤근 러시아대사가 막후 지원한 것으로 전해지고 있다.

해남·완도·진도는 윤재갑 전 해군 군수사령관이 일찌감치 입지를 다져놓고 있다. 황주홍 의원 지역구인 고흥·보성·장흥·강진에서는 민주당 지역위원장인 김승남 전 의원이 준비 중이다.

바른미래당 주승용 국회 부의장의 지역구인 여수을에서는 권세도 전 여수시장 후보, 김순빈 전 여수시의원, 김형근 전 전남도의원, 박완규 민주당 부대변인, 정기명 전 여수를 지역위원장 등 5명이 민주당 지역위원장 자리를 놓고 경쟁을 벌이고 있다.

순천은 무소속 이정현 의원이 활동하고 있다. 이 의원이 ‘촛불정국’으로 발목이 잡힌 사이에 민주당에선 지역위원장인 서갑원 전 의원이 움직이고 있다.

변수는 장만채 전 전남도교육감이다. 장 전 교육감은 지난해 전남도지사 선거에서 낙마한 뒤 순천에 사무실을 내고 활동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순천은 지역구가 1개에서 2개로 분리될 가능성도 있다.

민주당 현직 의원들은 안정세다. 전남도당 위원장을 맡고 있는 영암·무안·신안의 서삼석 의원은 전남도 국비예산 6조8000억원을 확보하는데 일등공신으로 부각되면서 지지기반도 견고해졌다. 서 의원에 맞서 평화당에서는 이윤석 전 의원을 내세울 것으로 보인다. 인천으로 잠시 외도했던 이 전 의원은 다시 유턴해 지역위원장을 맡았다.

담양·함평·영광·장성의 이개호 의원은 3선에 도전한다. 농림축산식품부 장관으로 거정에 몰두하고 있는 이 의원은 3선 중진으로 거듭난 뒤 ‘전남도지사’에 도전할 것으로 전망된다.

/박정욱 기자 jwpark@kwangju.co.kr
/오광록 기자 kroh@kwangju.co.kr

태양발전소 분양

동·식물 재배사(건물 위)가중치 1.5배
100KW 월 270만원 예상(+1층 농장 임대비) · 50KW 월 135만원 예상

땅+건물+태양광 년12% 수익
자금대출가능



연금 발전소 태양광이 효자!!

분양지역: 영광, 영암, 완도, 진도

연락주시면 방문하여 친절하게 상담해 드리겠습니다

100년 기업 **정직 · 신뢰**
(주)해가온 개발

상담 전국대표 1588-1543
이길영 010-3645-1479
광주광역시 북구 중흥로 166 해가온빌딩 1층

슬라브 옥상스틸 방수 및 지붕공사

단열재가 부착된 스틸(강판) 패널

옥상 스틸방수

아파트, 주택, 원룸, 학교, 상가건물
공공건물, 대형빌딩 등 (슬라브, 옥상)시공

갈라지고 물이 새는 옥상바닥
겨울의 차가운 냉기! 여름의 뜨거운 열기!
방수와 단열 한번에 해결!



▶방수와 단열 이중효과! ▶옥상 사용 및 태양광 설치 전과 후 시공 가능!
▶옥상 한번 시공으로 고민 끝! ▶최신공법의 특수 방수!

지붕공사

한옥, 사찰, 축사, 하우스
데스리, 펜션, 전원주택 등 시공

옥탑이 없는 평 슬라브
주택 및 한옥 등은 칼라강판 지붕공사



▶시공후 관리 보수 용이!
▶냉난방비 절감 효과!

디자인 등록 제 30-0934833호, 제 30-0949873호

트윈스틸 시공문의 062)531-3530 H.010-9229-3530
(모던건설)